

“전쟁 감당하기 힘든 고통”

문명금 할머니, 보상금 4300만원 베트남전 피해자에 보시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가 베트남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 전액을 보시, 자비를 실천해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나눔의 집(원장 혜진)에 거주하는 문명금(83) 할머니는 5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국제연대 사무실에

서 정부와 민간단체기금에서 받은 보상금 4300만원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에 전달했다.

문명금 할머니가 보상금 전액을 보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혜진스님으로부터 자신과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나눔의 집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놓고 싶었지만 혜진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어. 전쟁의 고통은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야.”

할머니는 현재 위안부생활 후유증으로 노숙증을 앓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다리가 안좋은 상태. 혜진스님은 “건강도 좋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지만 남은 여생 동안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었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추모위령탑 건립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위령탑이 세워진다.

나눔의 집, 대한불교연화회, 전국 불교장외연합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는 공동으로 오는 8월 15일 나눔의 집 입구에 '일본군 위안부 추모 위령탑'을 세운다.

18m의 높이로 세워질 이 위령탑은 지하에 납골시설도 갖춰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을 모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단체는 815명의 후원자로부터 각각 1만 원씩 815만원을 후원 받아 8·15 광복절에 맞추어 완공할 예정이다.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은 “그동안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공간이 없었다”며 “이름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위령탑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나눔의 집(0347-768-0064), 연화회(02-732-9618)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에 나눔의 집 법당을 찾아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고 밤에 나가 풀을 뽑는 등 발일로 소일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이면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10명의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문명금 할머니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전액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 이래구·김정구 공동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는 한 일본을 용서할 수 없어. 몸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세상에 알릴거야.”

1917년 전남 광양군의 어려운 가정에서 1남 3녀의 장녀로 태어난 문명금 할머니는 18살 때 친구들과 경남 하동에서 갔다가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일본인 말에 속아 중국 흑룡강성의 손오현 731부대 위안소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종전 후 할머니는 중국 조선족과 결혼해 위안소 근처에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지난해 2월 나

“1~2년 행자집체교육”

조계종 상설행자교육원 추진위 1차회의서 제기

행자교육이 1년 내지 2년 집체교육으로 실시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8일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무관스님(대구 법계사 주지), 간사에 교육부장 계성스님을 선임하고, 이전까지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건립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자교육원을 상설로 하여 행자교육원장 운영책임에 의해 집체교육을 실시한다는 데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나, 설립과 관련하여 분사활용, 전문사찰 활용, 새로 건립, 4~5개의 도량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결말을 짓지 못했다.

추진위는 7월 5일 2차 회의까지 3개 방안을 집약하여 행자교육원의 방향 및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19기 행자교육원이 직지사에서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은 8일 회의실에서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19기 행자교육원 개인일정을 확정하고 18기 행자교육원 사업보고 및 개선내용을 토론했다.

운영위원들은 18기 행자교육원 평가결과 현행 입교연령 상한선을 50세에서 40세로 조정할 것과 승의예향 교수사는 교육장에 상주, 행자의 입교전 기본학습 이수, 유원졸업생 기준으로 승의사 구성 등의 개선사항을 교육원에 제안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방송 사장 김규철씨 선임

불교방송 제5대 사장으로 김규철씨(만해사상 실천선암회 공동대표·58세)가 선임됐다.

불교방송은 8일 재단 이사회를 열고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추천된 김씨를 불교방송 사장에 만장일치로 임명했다.

김규철 신임사장은 “불자들의 신심 고취를 위한 종교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행정부와 방송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씨는 43년 경남 창원생으로 71-87년 외무부에 봉직했으며, 91년 불교방송 해설위원, 93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97-99년 산업기술정보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장 후보 추천 문제와 관련, 차기 사장부터는 진흥원에서 1인 이상을 추천키로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정성운 기자

아셈 민간단체 포럼 21일 봉은사에서 워크숍

‘아셈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종교분과’는 21일 오후2시 서울 삼성동 봉은사 교육관에서 ‘세계화와 영성(靈性, Spirituality)’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는다.

오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봉은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NGO포럼에 대한 사전준비모임의 성격으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토회 지도법인 법륜스님이 ‘세계화와 종교적 대안’을, 성공회대 권진관교수가 ‘세계화로 인한 삶의 변화’를, 천주교사회복지위원회 최재선 사무국장이 ‘종교인들의 사회적 실천’을 주제로 발표한다.

불성으로도 번역되는 ‘영성’은 종교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다양한 삶의 철학들, 문화적 가치와 신념들, 지역의 고유한 민중의 열정을 모두 포함한다. 김재경 기자

새천년 환경비전 선포

정부는 5일 제28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환경의 새 천년, 이제는 실천할 때’라는 주제로 제5회 환경의 날 행사를 갖고 새천년 국가 환경비전을 선포했다.

4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법륜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상임공동대표 스님(불교환경교육원 원장)은 ‘민간환경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성태 대자연보전환경연합회장(불국사 주지) 스님은 대통령 포장을 수상했다. 성태스님은 91년 4월 반야환경보존회 결성에 이어 93년 7월 대자연환경보존회를 결성하는 등 불교환경운동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련 인터뷰 4면> 김재경 기자

남북불교 세미나 개최여부

중단협 7월중 결정키로

남북불교 합동 세미나 개최 여부가 7월중 결정된다.

중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5일 중단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남북불교 합동 세미나와 관련, 진각종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북측의 반응을 파악한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등 진각종 대표단은 7월초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북불교 합동 세미나는 지난 3월 중단협의회와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의 북경회담에서 조불련이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중단협에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화해와 평화를 향한 겨레대합창’(10일)과 6.25전쟁 50주년 ‘온겨레 평화대행진’(25일)

에 중단의 대표와 주요 사찰 스님 등 신도들을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중단협의회 중단대표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회원 중단 관련 기사 및 광고 게재 자제를 교계신문과 방송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덕수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10개 중단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국방부 호국원공사를 비롯 전국 3백여 군법당에서는 4일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및 군복무중 사망한 군장병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호국 보훈의 달 교계 추모행사 잇달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전국의 사찰과 단체에서 잇따라 개최됐다.

국방부 호국원공사를 비롯한 전국 군법당은 4일 개국 이래 모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비롯 군복무 중 사망한 군장병들의 극락왕생과 국유음향, 군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일제히 봉행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이종욱)가 주최하고 군승단(단장 김말환)이 주관한 이날 법회는 전국 각 부대 소속 3백여 군법당에서 현역 불자장병과 예비역 장병, 공무원, 민간신도 및 유가족 등 1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엄숙히 거행됐다.

또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4일 경기도 파주 동파리 민통선

내 사면불을 친견하고 ‘남북통일기원 및 호국영령’ 왕생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왕생발원법회는 보명스님과 최해명 법사의 친축재를 시작으로 금강경 봉독, 장엄불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철로 연주, 구품연희의 법륜상진 춤 헌공과 후각가 오채현씨의 순창대 박사의 특강 등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각종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운덕)도 이날 육불보전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천도대법회를 열었다. 전물군경유가족 3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천도법요에는 해방이후 최근까지 순직한 전물군경 1천5백여 영가가 봉안됐다.

참고할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6일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UN모지

를 찾아 참배하고 묘지의 잡초 제거와 정화활동을 벌였다.

또한 경상남도불교협회(회장 보강)와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태)는 11일 도청 도민홀에서 호국기원법회를 가졌다. 도필선 기자

불교전공 교수 초청 ‘산사의 만남’

28·27일 해인사 홍제암서

일반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연대의 뜻을 모색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권)은 일반대학 불교전공교수들의 불교학 연구가 현실적이고 포교적으로 접근토록 유도하고, 중단과의 관계 설정을 모색하기 위해 26일부터 27일까지 해인사 홍제암에서 불교전공

교수초청 ‘산사의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 ‘산사의 만남’ 행사는 ‘불교학과 신행 하나인가, 별개인가’를 주제로 한 워크숍, 중단의 포교정책 제시 및 의견교환, 새벽예불, 발우공양,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 친견, 산내암자 참배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교원은 17일 1차 회의를 갖고 워크숍 발제자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박구원

조국은 소중한 것이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 감사의 말씀 ◆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1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 특별전이 지난 6월 2일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방장스님과 주지스님, 경상남도 지사, 문화재청장 등 내빈 200여명과 신도 5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 성황리에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박물관 자원 봉사자 여러분을 비롯한 그 밖에 분야별 회원여러분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앞으로 행해질 행사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합장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부처님 진신사리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이 지난 2일 개막식 이래 연일 3,000여명이 입장하는 성황리에 전시중입니다.

이번에 부처님 진신사리는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에서 모셔와 1400년 만의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금생(今生)에 두 번 다시 없는 마지막 친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함께 전시되는 사리장엄구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불교예술품으로 1996년 발견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처음 일반에 공개되는 감은사동탑 사리구를 비롯하여 전국 50여기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 보물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1,400여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관람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사리친견 행사기간 동안 부산, 울산에서 통도사까지 순환버스를 수시 운행합니다.

◆ 사리 친견 안내 ◆

- ▶ 전시기간 : 6월2일(금) - 7월 31일(월)
- ▶ 친견시간 : 오전8시 - 오후7시 (사리친견기간중 휴관 없음)
- ▶ 입장료 :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 예약안내 : 0523)384-0010 담당자: 이승현 (연락시 방문일시 및 사찰이름, 예약인원, 인솔스님 명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버스운행안내 : 부산,울산,경주지역등지에서 친견을 오실 경우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 박물관 버스(45인승)를 운행해 드립니다.